

미국 한인 가정폭력피해 한부모 빈곤여성들의 자활 경험*

정혜숙

(서울시립대학교)

[요약]

미국의 복지개혁 이후 근로연계와 더불어 가정폭력분야 여성복지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 목표 중 하나로 설정된 것은 '자활(self-sufficiency)'이다. 본 연구는 '아래로부터의 관점(bottom-up approach)'에 근거하여 가정폭력피해로 한부모가 된 미국 한인 빈곤 여성들의 자활 경험을 심층적으로 탐색하기 위해 질적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를 통해, 참여자들에게 '자활'은 '경제적 자립뿐만 아니라 정신적 자립 능력을 모두 갖추어 나가는 삶의 지속적 과제이자 과정'으로 확인되었다. 그들의 자활로의 도전들은 자활 과정 초기 가정폭력피해의 후유증으로 무너진 자활 잠재력의 복원이 필요한 시기와 장기적 차원에서 자활 과정을 유지해야 하는 자활 지탱력의 개발 시기를 포함한다. 이 도전들에 대처하기 위한 그들의 욕구는 '친정집 같은 도움과 지원', '선택과 집중의 복지지원', '성숙한 의존과 자활' 그리고 '생계유지가 아닌 꿈의 성취로서의 자활' 등으로 확인되었다. 가정폭력피해 한부모의 특수성과 이민자로서의 현실에 민감한 자활 정책 및 서비스 개선의 구체적 전략들이 제안되었다.

주제어 : 자활, 가정폭력, 한부모, 복지의존, 질적연구

1. 서론

1996년 미국 복지개혁의 새로운 법안 Personal Responsibility and Work Opportunities Reconciliation Act(PRWORA¹⁾)는 그 명칭 그대로 개인의 책임과 근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에게 복지의존의 기한을 명시하고 노동시장의 참여를 의무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탈수급과 자활(self-sufficiency)을 성취하도록 요청한다(Hong et al., 2009; Cheng, 2012). 최근 사회복지

* 본 논문은 2012년 서울시립대학교 연구년교수 연구비 지원을 통해 작성되었음.

1) 이하 본문에서는 약자 PAWORA로 사용.

지연구들은 위 법안의 성과로서 복지수급자 숫자의 감소, 빈곤층의 근로연계 증가를 기대할 수 있지만, 복지 의존의 감소가 빈곤의 감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빈곤층의 근로연계와 탈수급이 그들의 실제적 자활을 보장할 수 없음을 문제제기한다(Kneipp, 2000; Riger and Staggs, 2004; Hetling and Born, 2005).

본 조사는 복지개혁이후 전개되고 있는 ‘자활’ 논의에서 제기된 ‘아래로부터의 관점(bottom-up approach)’ 필요성과 취약계층인 가정폭력 피해 한부모 여성들의 자활 이슈를 검토한 사회복지연구자들의 논지에 주목하였다.

첫째, 자활 논의가 국가의 복지개혁 법안과 정책기조들에 명시되는 ‘위로부터의 관점(top-down approach)’에서 출발된 점에 대한 문제제기이다. 예로, Hong 외(2009)는 자활 접근이 미국의 이데올로기적 가치에 근거하여 개인의 역량강화와 강점의 개발을 동반하는 개별화된 과정을 무시하고 노동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살아남는 경제적 성취에만 우선순위를 줌으로써 사회적 약자들을 소외시키고 있다고 비판한다. 더불어 Garcés 외(2003)와 Kneipp(2000)은 사회복지가치를 반영하는 자활은 단편적인 하나의 조건 즉 경제적 능력으로 평가하기 보다는 개인의 다양한 생태적 환경과 현실(문화와 지역사회 자원들의 차이를 포함하는)을 반영해야 한다고 보았다. 즉 실제 탈수급과 자활을 성취해야 하는 당사자들의 다면적 현실을 충실히 반영한 ‘아래로부터의 관점’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여성복지 차원에서 빈곤층 한부모 여성들에게 근로연계와 자활의 고취를 강조할 때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한다(Brush, 2000; Cheng, 2010). 실제 현실에서는 한부모 빈곤여성들의 지속적 노동이 빈곤탈출과 자활을 담보해주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즉 복지개혁이 지향하는 자활이 실제하는 사회적 구조적 모순(직업기회부족, 노동시장변화 등)과 자녀양육을 위한 돌봄환경(보육자원 부족과 접근성의 열악함)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다면 비현실적 이상과 목표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미국 역시 저소득층 빈곤 및 수급가구 중 한부모 가구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가정폭력피해로 한부모가 된 여성 가구 또한 적지 않다(Tolman and Raphael, 2000; Cheng, 2012). 가정폭력분야 연구들(Brush, 2000; Tolman and Raphael, 2000; Tolman and Rosen, 2001)은 복지개혁이후 진행된 복지시스템의 변화가 가정폭력피해 한부모 여성들의 생존과 안전을 또 다시 위협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고하였다. PWORA와 연동되어 연방정부에서 지급되는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TANF)²⁾에 대한 문제제기가 그 예이다. TANF는 조건부 현금지원방식으로 기한 내 수급자들이 의무적으로 근로활동을 시작하게 하고 수급은 생애 최대 5년으로 국한함으로써 지속적 근로를 통한 탈수급에 도달하도록 유도한다. 그러나 열악한 근로조건과 빈곤의 순환적 역동으로 인해 많은 여성들이 그 기한을 지키지 못하고 수급권까지 잃어 궁극적으로 극심한 생계 위기에 처하게 된다. 이런 막다른 상황에서 특히 가정폭력피해여성들의 경우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다시 가해자의 경제적지원에 의존하는 선택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지적되었다(Cheng, 2012; Meisel et al., 2003).

최근 보고에 의하면 다인종 국가 미국에서 한인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증가하며, 2011년 시점 외무부에 정식으로 집계된 미국이주 한인인구만 해도 2백만에 이른다. 그러나 자활 관련 기존 국내외

2) 이하 본문에서 약자 TANF로 명명. 복지개혁이후 TANF는 기존 AFDC처럼 빈곤층이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수급권(entitlement)으로가 아닌 조건부 시한부 프로그램으로 시작됨.

문헌들을 총체적으로 검토해보면 아직 한인을 포함한 소수인종 이민자들의 문화적 고유성과 이민현실을 반영한 자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아래로부터 관점'에 근거하여 가정폭력피해로 한부모가 된 미국 한인 빈곤 여성의 자활 현실을 다면적 차원으로 이해하기 위해, 복지의존과 자활의 경험을 갖고 있는 자활프로그램의 참여자들의 목소리를 탐색하는 질적연구설계를 수행한다.

이 논문은 미국복지개혁 이후 한부모 빈곤 여성들의 삶의 중심과제로 강력하게 부각된 자활 접근에 대한 반영적 조망으로, '가정폭력과 이혼, 한부모와 빈곤화 그리고 이민생활'의 다중적 역경 속에서 자활이라는 도전을 대면하고 헤쳐 나가고 있는 미국 한인 여성들의 고유한 경험에 초점을 둔 최초의 질적연구로서 그 함의를 갖는다. 본 조사의 연구문제는 "가정폭력피해로 한부모가 된 미국 한인 빈곤 여성들의 자활 경험은 어떠한가?"이다.

2. 선행 연구 검토

1) 자활(self-sufficiency)에 대한 비판적 검토

미국에서 자활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는 연구소, 웹사이트, 정책관련 보고서에서 언급되어지는 자활은 일반적으로 '복지의존 감소', '빈곤의 종결', '근로연계'등으로 규정되는 경제적복지의 질을 지칭하지만, 원래의 사전적 의미는 한 개인의 독립(independence)과 관련되며 각 개인이 자립의지(self-reliance)와 자조(self-supporting)의 삶의 방식을 취하는 것을 뜻한다(Hawkins, 2005). 한편 가족보존의 철학과 가족중심의 자족을 강조하는 미국의 경우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단위차원에서 자활 개념 역시 널리 쓰이는데, 자활적 가족은 공공의 지원과 원조 없이 가족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Long, 2001).

미국 복지개혁의 특성을 분석하며 자활에 대한 정치사회적 맥락을 근거로 자활에 대한 비판적 문제제기를 시도한 진보적 사회복지 연구자들(Gowdy and Pearlmutter, 1993; Vernon and Qureshi, 2000; Daugherty and Barber, 2001; Long, 2001; Becker et al., 2004; Hawkins, 2005; Cooney, 2006; Hong et al., 2009)의 공통 논지들을 두 가지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활 접근은 근대 미국적 생활방식을 결정짓는 '개별성', '자유', '자립의지'와 조화되어 인간의 이상을 증진시키고 유지시키는 이데올로기적 도덕적 가치와 깊게 연관되어 있다. 모든 미국인들은 근로능력이 있는 한 노동시장에 참여함으로써 스스로 자신과 가족들을 경제적으로 부양하는 것이 가장 도덕적이고 보편적이라는 사회문화적 기대를 받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자활은 복지개혁이 낳은 빈곤 정책의 상징적 구호로서 복지개혁활동의 성공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출현하였고 미국의 전통적 복지이데올로기와 자유시장 경제원칙을 따르는 주요한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이 패러다임은 근대적 의미의 복지국가 흐름에 역행하는 것으로, 빈민을 노동능력과 노동참여의 기준으로 '가치 있는(deserving) 빈민'과 '가치 없는(undeserving) 빈민'으로 나누는 전근대적 차원의 복지가

념으로 퇴보하는 것이다.

둘째, 현재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활'은 국가를 유지하는 정치경제학적 이데올로기와 정책결정자들의 의도가 스며들어 있는 '위로부터의 관점'을 반영한 것이다. 자활 정책 및 프로그램의 목표가 그 대상인 빈자와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빈곤의 복합적 특성과 개인과 가족의 고유성, 그리고 노동 환경의 다차원적 맥락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Gowdy와 Pearlmutter(1993)는 자활개념의 클라이언트중심 관점을 실증적으로 조사하여, 자활의 네 가지 차원(자율성과 자기결정, 재정적 안전과 책임, 가족과 자신의 복지, 지역사회 안에서 사는 데 필요한 기본 자산들)을 소개하였다. 이와 동일한 맥락으로 Hong 외(2009)는 소비자관점의 자활개념을 빈곤층 구직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질적조사한 결과, 자활은 성과이기보다는 과정으로 한 개인이 현실적인 재정 목표를 향해 역량강화 되는 여정으로 재규정하였다. 또한 비현실적 재정성과보다는 개인의 내적 힘들과 미래에 대한 조망을 세워나가는 단계들을 거치면서 현실적 자립을 위한 기술과 자원들을 획득해나가는 방향이 그 속성이 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2) 가정폭력, 한부모, 이민 여성의 자활 관련 이슈

복지개혁법안인 PRWORA가 여성들에게 미친 영향들에 관한 여성복지적 차원의 연구들(Murphy, 1997; Tolman and Raphael, 2000; Brush, 2000; Edin, 2000; Kneipp, 2000; Grube-Farrell, 2002; Riger and Staggs, 2004; Hetling and Born, 2005; Cooney, 2006; Cheng, 2010; 2012)이 축적되어왔다. 이 연구들은 미국의 복지시스템의 현실이 한부모 빈곤여성과 가정폭력피해여성들에 어떤 도전과 변화를 가져다주었는지에 관한 실태를 포함한다. 위 문헌들 중 가정폭력피해여성들의 일(work) 관련 실태와 이슈들을 분석한 논지들을 근거로 가정폭력피해 한부모 여성들의 자활 현실을 도출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피해여성들의 가해자들은 대체로 파트너 여성들의 '교육, 직업훈련 및 활동, 고용'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가해자의 특성은 피해여성의 자활 준비 및 성취의 장애물로 작용하여 그 여성의 직업 활동중단의 결과를 가져오는 결정적 요인이 되기도 한다. 둘째, 이러한 가해자들의 고용방해가 항상 성공하진 않더라도 그들의 피해여성에 대한 지속적 집착과 통제가 그 여성의 신체 및 정신 건강문제를 악화시켜 이후 자활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셋째, 위의 원인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자활지원을 계획할 때, 정책결정자와 프로그램 제공자는 고용성과에 집중하기에 앞서 그 여성과 자녀의 건강과 안전을 자활 목표와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더불어 서비스제공자들은 그 여성들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안전하고 편안한 분위기로 상담을 이끌고, 구체적 수급조건들의 반복적 고지와 동의를 구하는 등, 관련 복지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자활 관련 여성연구에 모델이 된 Raphael(1997)의 대단위 실태조사에 의하면 복지의존 여성들의 60%가 가정폭력피해자라고 보고 하였다. 그리고 후속연구들(Murphy, 1997; Brush, 2000; Tolman and Rosen, 2001)은 과거 가정폭력피해를 입은 여성들의 건강상태를 조사하였는데 일반 여성

들에 비해 매우 높은 비율로 신체적·정신적 건강문제를 호소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는 과거에 받은 가정폭력의 심리적, 신체적 피해의 후유증이 이후 지속되고 있음을 뜻하므로 복지정책결정자들은 가정폭력피해여성들의 복지수급, 일, 아동양육 등을 지원할 때 위의 현실을 반드시 고려해야함을 뜻한다.

관련 선행 연구들은 한부모 여성(혹은 가정폭력피해여성)의 자활 이슈는 다루고 있으나 부가적으로 미국 이민여성의 특수한 현실을 반영한 자활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따라서 이민과 가정폭력을 다룬 기존 연구 성과로부터 본 연구문제와 관련된 주요 이슈들을 간략히 정리하였다.

첫째, 이민자 현실의 특수성은 법적 이민 신분³⁾의 제약, 언어 및 문화 장벽, 기존 지지망으로부터의 분리,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 의사소통과 서비스 접근성 제약 등의 복합적 어려움이 일상적 스트레스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민여성들은 가정폭력피해를 입더라도 추방에 대한 두려움(fear of deportation), 사회적 고립, 홀로서기의 두려움으로 폭력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다(Gondolf, 1998; Raj and Silverman, 2002). 이들을 위한 법적 구제 장치와 복지서비스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혜택을 받는 실제 이민자들은 아직 소수에 불과하다는 평가이다(Bhuyan, 2008). 둘째, 한인을 포함한 아시안 이민자들의 가정폭력특성에 대한 조사들(Huisman, 1996; Kim-Goh and Baello, 2008; Kim and Sung, 2000; Rhee, 1997; Yoshioka et al., 2001)은 가정폭력이 가족갈등과 이혼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피해여성들은 가부장적 위계를 존중하는 가족구조에서 남편의 경제력에 의존하거나 가족사업에 동참하고 있어 가정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경제적·정서적 독립을 감행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결정임을 지적하였다.

3) 본 연구의 고유성

앞서 실제 자활당사자들의 현실에 부합한 자활 접근을 위해 아래로부터의 관점에 근거한 연구들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였고, 자활 사각지대에 놓여있을 가능성이 높은 잠재적 대상으로 가정폭력 피해 한부모 이민 여성들의 자활 현실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문화적 다양성을 고려하여 소수인종 이민자들의 자활 현실을 탐색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편 가정폭력 분야의 최근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그동안 복지개혁이 가정폭력피해여성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들이 조금씩 축적되고 있으나 가정폭력피해로 이미 가해자를 떠난 한부모 빈곤 여성들의 자활과정을 조사한 질적연구는 없었다. 즉 '한부모, 가정폭력, 이민, 자활'의 주제들을 하나의 조사문제로 탐색한 최초의 질적연구로서 본 연구의 고유성을 찾을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국내 학계 및 현장에 기여할 수 있는 본 연구의 기대성과는 이리하다. 한국 역시 다른 선진 국가들의 복지개혁 흐름과 유사하게 2000년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근로연계형 복지시스템의 구축으로 자활 접근을 널리 사용하게 되었으며, 현재까지 진행된 자활사업에 대한 사회복지연구자들

3) 시민권자 남편과 결혼하여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 중에 있는 경우 혹은 불법으로 거주하고 있는 이민여성들은 가정폭력발생시 공적 도움을 요청할 때 자신의 이민 지위가 사라지거나 이민 신분이 노출되어 고국 땅으로 추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

의 조사와 평가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여성의 자활이슈에 초점을 둔 국내 연구는 매우 소수이며 빈곤여성들에 초점(강남식·백선희, 2001; 강남식 외, 2002; 황미영, 2002)을 두고 있다. 유일하게 김인숙(2008)은 아래로부터의 관점 맥락에서 성매매여성 현장을 조명하여 자활 개념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과 재구성을 제안하였다. 이에 본 연구 성과는 자활 당사자들의 고유 경험과 특수성을 고려한 자활 접근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고 국내 복지현장의 여성자활프로그램에 참고할 수 있는 의미미한 국외 정보를 제공해줄 것이다.

3. 질적연구설계: 자료수집 및 분석과정의 개요

본 조사는 클라이언트중심관점의 질적연구설계를 통해 가정폭력피해로 인해 한부모가 된 미국 한인여성들의 자활 경험을 이해하고자 한다. 질적연구방법은 개인의 현실을 구성하는 삶의 역사와 사회문화적 환경 조건들을 반영하고 개인 경험의 복합적 맥락과 특성을 조명하는데 탁월하므로(Marshall and Rossman, 1989) 내부자적(emic) 관점으로 특정의 현실을 경험하는 개인들의 고군분투(struggle)와 성장을 이해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취지에 적합하다.

본 조사 자료수집과정의 초점은 '가정폭력피해 한인 한부모 빈곤 여성들은 어떻게 자활이라는 삶의 과제를 직면하고 경험해왔는가? 그들의 자활 현실은 어떠했는가?'이다. 연구자는 뉴욕 주에서 한인들을 위한 광범위한 가정폭력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한 기관에서 다년간 일한 경험을 활용하여 본 조사의 참여자들을 모집하였다. 심층면담은 2012년 5월에서 2013년 2월까지 참여자가 거주하고 있는 집과 직장에서 수행되었다. 참여자들의 최종동의를 거쳐 면담을 시작하였으며 포화관점에 근거하여 모두 7명을 심층 면담하였다. 반구조화 된 심층면담(2~3시간)을 진행하였고 관찰을 병행한 참여자 3명과는 자료 확인과 더불어 2차면담을 각 2시간에 걸쳐 진행하였다. 뉴욕주와 뉴저지주에 거주하는 참여자들은 모두 가정폭력피해여성을 위한 자활프로그램⁴⁾과 복지수급 경험이 있으며, 가해자와 분리되어 학령기 자녀들을 양육하며 생활하고 있다. 참여자들의 한부모 경험은 1년에서 17년 까지 다양한 기간이 포함되어 있어,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활 관련 분투와 성장 경험 그리고 분리 후 초기과정에서 겪은 자활 현실에 대한 생생한 보고를 들을 수 있었다⁵⁾.

수집된 자료의 투명성 보안을 위해 삼각화차원에서 미국에서 수년간 가정폭력피해여성들의 자활 과정을 목격해온 임상사회복지사 1명과 자활프로그램 담당사회복지사 1명에게 자문을 요청하여 심층면담을 수행하였다. 이들과의 면담을 통해 참여자 관찰과 심층면담과정에서 수집한 정보에 관한 연구

-
- 4) 복지개혁이후 가정폭력관련 기금 역시 '자활'에 초점을 두고 있다. 위 참여자들은 언어장벽으로 영어권 프로그램 보다는 한인기관에서 제공하는 직업훈련(진로상담, 컴퓨터, 영어, 이력서 쓰는 방법 등), '주택보조', '지지집단' 등이 제공되는 자활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을 갖고 있다. 미국에는 국내와 같은 자활 사업장들이 없으며, 한인들의 직업훈련 성과는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위 참여자들은 자활 프로그램의 참여여부에 상관없이 일반 노동시장에서 스스로 근로활동을 찾아야 한다.
 - 5) 참여자들은 그들의 자활 현실을 인식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자활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통해 그들의 자활 경험을 연구자에게 보고하는 동기 혹은 태도가 개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자의 인식과 자료해석과 관련된 자문을 제공받았으며, 더불어 서비스제공자로서 간접적 차원으로 경험한 참여자들의 현실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였다.

참여자 7명중 세 명(위의 참여자 1, 2, 6)은 연구자와 유대관계를 맺을 수 있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었고 정서적으로 상호신뢰가 잘 형성되었던 터라, 연구자에게 그들 자신의 집, 가족 그리고 직업 환경을 관찰하고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었다. 자료수집과정에서 연구자가 발견한 관찰 자료의 고유성과 유용성은, 첫째, 관찰을 통한 맥락적 이해를 근거로 참여자에게 구체적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도 가질 수 있어 보다 실제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참여자5의 직장을 찾아가 관찰한 후 근처 카페에서 면담을 할 수 있었다. 그때 백인매니저와 참여자의 상호작용을 목격하면서 느낀 연구자의 의문점을 질문하였고, 그녀가 오랫동안 그녀의 인종 및 이민지위 그리고 언어기술로 인해 겪은 좌절과 대처 경험을 상세히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둘째, 관찰을 통한 비언어적 차원의 상황은 참여자 현실을 보다 사실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예를 들어, 참여자 1의 집에 4일 머물며 참여관찰과 면담을 수행할 때의 일이다. 그녀는 그 집에 이사한지 열흘정도가 지났지만 공부에 전념하는 고 3의 딸을 위해 혼자서 모든 이삿짐을 정리해야하는 상황이었다. 이 상황은 전일근로자인 그녀에게 매우 벅찬 일이었기에 연구자는 그녀의 집안일을 돕는데 2일을 소요하였다. 연구자는 그 상황 자체가 참여자들 삶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 느꼈으며, 그 당시 나누었던 그녀와의 대화들은 다른 참여자들의 경험들을 실제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맥락적 정보가 되었다.

자료분석은 질적연구설계에서 보편적으로 쓰이는 절차 즉 발견되는 코드들을 범주로 나누고 조직화하여 연구문제에 해당하는 주제와 의미들을 도출하고 재구성하는 과정(Miles and Huberman, 1994)으로 진행하였다. 자료 분석 및 해석의 최종 과정에서는 참여자들의 진술들과 관련된 다양한 원천들(면담과 관찰 그리고 자문자료)을 교차하여 비교 검토하였다. 연구결과에 삽입된 원자료는 발췌된 것으로 중간에 중략된 부분은 표시(...)하였다.

4. 연구 결과

1) 참여자 특성 개요

참여자들과 자문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아래의 <표 1> 정보는 그들의 비밀보장의 권리와 관련하여 그들이 동의한 간단한 정보만을 포함하였다.

〈표 1〉 참여자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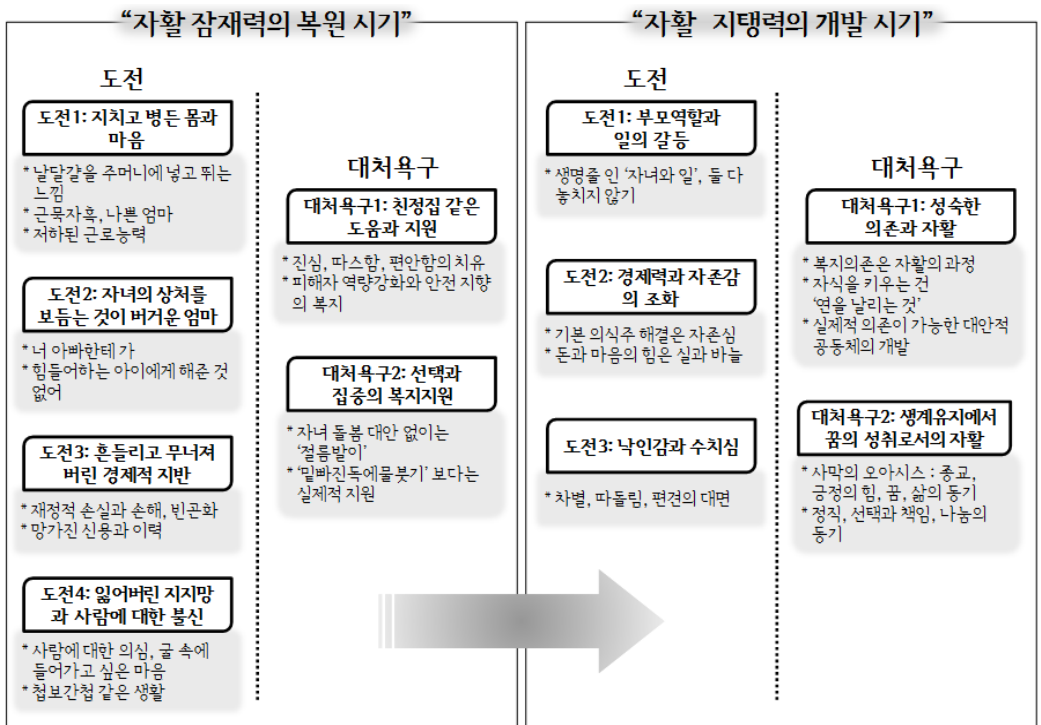
참여자(연령)	자녀수(연령)	가정폭력역사와 현재까지의 주요현실
참여자 1(46)	1명(17)	결혼 4년 만에 분리 15년차/ 2년간 자활프로그램 참여/ 파트타임 사무직 보조 2년/ 현재 코스매틱 세일즈맨으로 활동/ 복지의존에서 경제적 자립 달성/ 시민권자
참여자 2(56)	1명(18)	한국에서 결혼 6년 만에 분리 17년차/ 이민초기 약 6년 간 식당서빙근무/ 10년 채소가게 운영/ 복지의존에서 경제적 자립 달성/ 2년 자활프로그램 참여/ 시민권자
참여자 3(48)	3명(17, 13, 9)	결혼 10년 만에 분리 6년차/ 2년 자활프로그램 참여/ 파트타임 식당근무 2년/ 2년 보험세일즈맨/ 현재 파트타임 식당근무/ 복지의존/ 영주권자
참여자 4(43)	2명(18, 13)	미국에서 결혼 4년 만에 가해자와 분리 16년 차/ 3년 자활프로그램 참여/ 네일살롱 5년/ 현재 부동산중계업소 8년 근무/복지의존에서 경제적 자립 달성/ 시민권자
참여자 5(45)	2명(9, 17)	결혼 5년 만에 분리 11년 차/ 3년 자활프로그램 참여/ 파트타임 사무직보조 2년/ 복지관경리 2년/ 현재 보험세일즈/ 복지의존에서 경제적 자립 달성/ 시민권자
참여자 6(39)	1명(8)	결혼 3년 만에 분리 2년차/ 현재 자활프로그램 참여/ 결혼 초기부터 인쇄자영업, 가해자의 방해로 2년 직업 활동중단/ 현재 다시 프리랜서로 인쇄업 재개/ 복지의존/ 영주권자
참여자 7(40)	2명(10, 7)	결혼 5년 만에 가해자와 분리 1년차/ 현재 자활프로그램 참여/ 한국에서 웨딩업체 8년 근무/ 현재는 네일살롱에서 파트타임 근무/ 복지의존/ 영주권 보유
복지사 1(52)		가정폭력 사회복지서비스 경력 13년
복지사 2(40)		자활관련 사회복지서비스 경력 5년

참여자 모두 가정폭력피해 한부모 여성들로 홀로 1명~3명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다. 가해자로부터 분리된 지 2년 이내인 참여자들은 아직 경제적으로 복지수급에 의존하면서 근로를 병행하고 있다. 2명중 1명의 참여자는 현재 정부가 주택보조금을 지급하는 공공주택에 머물고 있으며, 나머지 한명은 한 교회건물 옥탑방에 2명의 자녀들과 거주하고 있다. 가해자로부터 분리 된지 6년~18년차 된 참여자들 5명 중 4명은 복지의존을 벗어나 경제적 자립을 이루어 안정된 직업 활동으로 가정경제를 꾸리고 있다. 나머지 한 명은 가해자 전 남편의 끈질긴 괴롭힘과 건강문제로 고용과 근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보고하였다.

2) 분석 결과

본 조사는 '가정폭력피해, 이민생활, 한부모, 빈곤, 복지의존'이라는 삶의 조건들을 복합적으로 직면해온 참여자들의 자활 경험을 탐색하는 자료수집과정을 거쳤다. 아래의 분석결과는 방대한 결과들 중 연구문제와 관련되어 도출된 주요 주제들을 재구성하여 제시하고 수준별 주제들의 의미, 관련된 참여자들의 대표 진술, 그리고 연구자의 해석을 포함하였다.

분석결과로서 본 연구의 주제어인 ‘자활’은 경제적 자립뿐만 아니라 ‘한 개인으로서, 부모로서’ 스스로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정신적 자립 능력을 모두 갖추어 나가는 ‘삶의 지속적 과제이자 과정’으로 해석⁶⁾되었다. 참여자들의 자활 이야기 초점은 삶의 고군분투에서 대면하게 된 자활로의 도전들 그리고 그 도전들을 경험하면서 느꼈던 대처 욕구들(needs for coping)이었다. 따라서 미국 한인 가정폭력피해 한부모 빈곤여성의 자활 경험은 대주제인 “자활로의 도전들 그리고 대처욕구들”로 요약될 수 있다. 이 대주제의 내용은 크게 두 시기 즉 ‘자활 잠재력(potential)의 복원 시기’ 그리고 ‘자활 지탱력(sustainability)의 개발 시기’로 구분하여 제시되었다⁷⁾(〈그림 1〉 참조).



〈그림 1〉 미국 한인 가정폭력 피해 한부모 빈곤여성의 자활 경험 : “자활로의 도전들 그리고 대처 욕구들”

- 현재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자활’로 번역하였으나, 위 참여자들은 원어 ‘self-sufficiency’로 통용하거나, ‘자활’보다는 ‘자립’ 혹은 ‘자조’, ‘홀로서기’라는 우리말에 더 익숙하다고 보고하였음. 따라서 위의 ‘자활’ 해석은 그 용어의 개념적 근거 보다는 참여자들 스스로가 익숙하게 인지하고 있는 언어적 맥락을 반영하고 그들의 스토리텔링에 근거한 ‘의미 혹은 메시지’로서 도출된 것임. 앞서 언급한 문헌(Hong 외, 2009)에서 소개한 ‘자활은 성과 보다는 과정이고 여정’의 맥락과 유사함.
- 해석적 관점에서 볼 때, 도전과 대처 욕구들의 내용이 두 시기에 모두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두 시기로 구분된 본문의 내용은 참여자들의 현실적 도전의 절박함과 우선순위의 욕구 차원에서 표출된 목소리를 그대로 반영하려고 노력하였다.

(1) 자활 잠재력의 복원 시기

참여자들은 가정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새로운 홀로서기의 길을 선택했지만, 참여자들이 그 길 초입에서 맞닥뜨리게 된 장애물은 쉽게 치워버리기도 비켜가기도 어려운 “과거(가정폭력피해)의 상처와 후유증 그리고 그것이 빚어내는 오늘의 두렵고 힘겨운 현실”의 도전이었다. 이 도전은 그들을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지만 그것을 대면하고 해쳐나가는 과정을 통해 그들의 새로운 자활의 길에 쓰일 잠재력과 에너지를 복원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도전 1. 지치고 병든 몸과 마음

참여자들은 가해자와 분리된 후 쉽게 회복되지 않은 자신의 몸과 마음으로 인해 ‘생각하는 것과 사는 것의 괴리’가 너무 큰 현실이 당황스러웠다고 고백하였다.

· 날달걀을 주머니에 넣고 뛰는 느낌

특히 가해자와 분리된 후 얼마 되지 않은 참여자들의 경우 현재 겪고 있는 그 후유증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참여자6은 그러한 자신의 모습이 ‘날달걀을 주머니에 넣고 뛰는 느낌’이라고 표현한다. 이런 현실은 참여자7처럼 그들의 희망과 자존감의 상실을 초래하여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다시 가해자에게 돌아가고 싶은 고민을 만들기도 한다.

“학대 받아와서 그런지...막 풀려났더니 어디서부터 뭘 시작해야할지 모르는 거죠...우울증도 않고...하혈을 몇 달 계속한다든지...뭘 하고 싶어 하다가도 갑자기 멍하니 앉아있는 거죠...날달걀을 주머니에 넣고 뛰는 느낌.”(참여자6)

“가정폭력이라는 게 참 치명적이죠...자존심이 밑바닥이 되지...죽으려고 몇 번 그랬어요. 이럴 바에 남편에게 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끝없이 생각하게 되고.”(참여자7)

· 근묵자흑(近墨者黑), 나쁜 엄마

참여자들은 자신의 원래 모습과는 다른 몸과 마음의 증상들이 나타나 당황스러웠다고 보고하였다. 참여자 3은 ‘근묵자흑’처럼 그리도 미워했던 가해자의 모습이 자신에게 보여 ‘나쁜 엄마’가 된 것 같아 너무 슬펐다고 한다.

“원래 참 제가 긍정적이라 뭐하든 잘하고...정신적 스트레스가 많아져 애에게 소리를 지른다던지...근묵자흑이라죠. 그 사람(가해자)이 싫으면서도 그 사람한테 배운 게 있는 거예요. 그게 참 슬프더라고요.”(참여자3)

· 저하된 근로능력

이혼 1년차인 참여자 7은 현재 생활에너지가 과거 건강할 때 자신의 것에는 훨씬 못 미치는 터라 일하는 것이 매우 힘들다.

“에너지가 너무 없기 때문에...예전과 달리 나는 4일 일하면 끼이끼이야. 삶은 달걀 안 찢고 넘겨보셨어요? 그 느낌처럼 하루하루 한 시간이 너무 벅차더라고요.”(참여자7)

도전 2. 자녀의 상처를 보듬는 것이 버거운 엄마

참여자들에게 자녀의 존재는 가해자와의 관계를 쉽게 정리하지 못했던 이유인 동시에 그 관계를 마침내 정리하게 된 이유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그들 못지않은 고통과 상처를 받은 자녀들에게 엄마로서 버팀목이 되어주지 못하는 현실이 그들에게 가장 큰 도전이고 과제였다고 보고한다.

· 너 아빠한테 가

참여자들은 때로 자녀의 상처가 보일 때도 그것을 보듬는 것이 너무 버거웠다. 참여자4는 아들에게 남편의 폭력적 모습이 보였을 때 충격을 받았으며, 때로는 그런 아들을 아빠에게 보내버리고 싶었다고 고백한다.

“애가 내 삶의 목적이었으니까...그런데 애가 아빠와 똑같은 모습을 보고 너무 충격 받았어요...안 그래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멈추고 눈물 흘림), ‘너 아빠한테 가...’”(참여자4)

· 힘들어하는 아이에게 해준 것 없어

참여자 2는 혼자 도망 나온 후 미국으로 이주하여 채소장사를 하며 돈을 모아 5년 후 아들을 되찾았다. 그러나 아빠와 사는 동안 아들은 더욱 기가 죽고 말없는 소년이 되어있었다. 게다가 이제 낯선 미국 학교에서 힘들게 적응하는 아들을 보면서도 그녀는 바쁘게 일하느라 아들 위해 해준 것이 없�늘 미안했다.

“기가 죽어 살다가 여기 학교에서 또 영어도 몰라 병어리처럼 사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알면서도 일하느라...같이 밥 먹을 시간조차 없었죠...그게 참 미안해요.”(참여자2)

도전 3. 흔들리고 무너져 버린 경제적 기반

이민생활에서 한인 기혼여성들은 자녀양육과 가사일 그리고 근로활동을 통해 가정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한국에서 전문직 경험이 있더라도 이민과 더불어 새로운 구직과 언어기술을 습득해야 그 경험을 활용할 수 있지만 그게 쉽지 않은 일이므로, 많은 한인여성들은 가족구성원들과 같은 사업장에 고용되어 비전문직 노동을 하거나 한 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며 가정경제를 책임진다. 부부 합의로 이혼한 것이 아니고 가정폭력문제로 그들이 쌓은 재산이나 재정적 신용 및 이력을 포기하고 탈출한 상황이었기에, 그들의 경제적 기반은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린다. 낯선 땅의 이민자로서의 현실 그리고 자신과 자녀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한부모의 위치와 맞물려 그 기반의 복원은 쉽지 않다. 따라서 그들은 빈곤과의 싸움을 시작하게 되고, 미국사회에서 경제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이력과 신용도 새로 쌓아나가야 한다.

· 재정적 손실과 손해, 빈곤화

경제적 안정을 포기하고 이혼을 감행한 참여자들은 생계를 위해 일을 시작하지만 곧 빈곤한 현실에 맞닥뜨리게 된다. 참여자 7은 결혼 전 전문 플로리스트로서 활동했고, 이민과 결혼 후에는 남편과 가족비즈니스를 운영하며 경제적 안정을 누렸지만 남편으로부터 도망 나온 후 현재는 이는 교회 내부 화장실도 없는 작은 쪽방에서 자녀들과 살고 있다. 그녀는 경제적으로 충족했던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욕구를 마음 한켠에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⁸⁾.

“한국에서 돈, 명예도 많이 얻었지만 여기서 그게 다 무용지물이더라고요. 그래도 시댁 가족들과 비즈니스를 같이 해 경제적으로 불편함이 없었는데... 낯선 여기에서 저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야... 초보라 얼마 벌지도 못해요.” (참여자7)

· 망가진 신용과 이력

문헌검토에서 언급하였듯이, 대부분의 가정폭력 가해자들은 권력과 통제에 대한 집착 때문에 여성의 직업적 성공에 온전한 지지를 제공해주지 않으며, 심한 경우 이혼 후에도 피해여성의 경제활동을 방해한다. 참여자 2는 자신의 일터조차 무너뜨리는 전 남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이민도 결심하였고, 참여자7은 자신의 사업 동료에게 폭력과 협박을 일삼은 남편으로 인해 사업을 유지할 자금과 신용을 잃었다.

“일하는데 와서 벽을 부수고 소리 지르고...더 이상 창피해서 그 일을 계속할 수 없었어요. 다시 원래의 제 직업적 제자리를 되찾는 게 쉽지 않았지요. 그 사람한테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미국으로 오고 싶었죠.” (참여자2)

“동료들이 애 아빠의 난리법석에 두 손 다 들었죠. 오랫동안 지켜본 친한 동료가 ‘남편이랑 헤어지지 않으면 너 사업은 끝이다’라고 했죠.” (참여자7)

도전 4. 잃어버린 지지망과 사람에 대한 불신

참여자들은 기존 지지망의 손실과 사람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꺼려지기도 한다. 또한 어떤 참여자들은 독립 후에도 가해자의 통제와 집착 행동이 사라지지 않아 불안에 시달리기도 한다.

· 사람에 대한 의심, 굴 속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

그들은 남편의 배신, 그들의 상황(가정폭력, 이혼, 한부모)에 대한 타인들의 가십과 비난, 이와 관련된 수치심이 커져가면서 타인에게 마음의 문을 여는 것도 쉽지 않았다. 즉 기존 신뢰와 지지적 관계들이 손실되었지만 새로운 지지망을 만드는데 있어서도 소심하고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어 그들의

8) 이 참여자가 속한 지지집단을 운영했던 사회복지사 1과의 면담내용에 의하면, 사회복지사는 ‘그녀가 처음 겪고 있는 참담한 현실 때문인지 남편과 함께 누렸던 재정적 충족함을 매우 그리워하고 다시 되찾고 싶은 마음을 읽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연구자가 이 참여자에게 남편에게 돌아갈 가능성을 물었을 때는 ‘글쎄요’라고 답변하였다.

외로움과 설움은 커진다.

“좀 건드리지 않았으면... 마음은 굴 속에 들어가고... 잘 해주는 사람도 있지만 괜히 의심하게 되고, 또 나를 찢러대고 흠을 잡으려 달려드는 사람들...”(참여자5)

· 첩보간첩 같은 생활

가해자의 지속적 통제에 의한 불안함을 느끼는 피해여성은 참여자 3 처럼 가능한 기존 지지망 체계를 끊어내기도 한다. 그녀는 처음 5년간 가해자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친근했던 세상과 단절되어 고독한 분투를 했다.

“여기가(미국) 도망와서 혼자 있기 편해요...생전 해보지 않았던 가발장사를 하면서... 정말 첩보 간첩처럼 살면서 내가 아는 모든 사람과 연락을 끊었어요. 외로움 속에 피눈물 흘리며 독하게...”(참여자3)

대처 욕구 1. 친정집 같은 도움과 지원

위에서 언급한 건강약화, 빈곤화, 위협한 사회적 단절과 정서적 고립을 경험하는 이 시기에 참여자들은 조건 없이 그들을 수용하고 진심의 이해와 지원을 아끼지 않는 지원이 필요했다. 참여자들은 친정과 멀리 떨어져 있는 이민생활에서 ‘친정집’ 같은 도움이 그들 상처의 회복에 절실했다고 설명한다.

· 진심, 따스함, 편안함의 치유

참여자들은 마음이 다치고 닫혀버린 피해자였기에 도움을 주고자하는 사람들의 태도에 매우 민감하다. 참여자1은 한 사회복지사의 진심, 따스함, 편안함의 치유를 통해 마음의 문을 열고 세상 밖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고 한다.

“진심인지 아닌지 느껴지는 법이죠. ...‘내 꼴이 이러니까 그렇구나’ 생각하죠...상처받을 거 같으면 더 닫히게 되잖아요...그저 친정집같이 해줬으면 하는 거죠...그분을 만나 제 편견도 바뀌고 제 원래 모습을 찾아가고 있어요.”(참여자1)

· 피해자 역량강화와 안전 지향의 복지

참여자들은 적어도 과거가 빚어낸 결과들을 추스르고 어느 정도 수준의 자활로 복원되기까지 복지 의존은 필수적이라고 느꼈다. 그러나 그들이 경험하는 복지서비스 조건과 제공자들이 그들의 현실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길 희망하였다. 참여자들이 미국에서 복지이존을 선택하고 유지할 때 느끼는 스트레스 원천으로 ‘언어장벽과 인종차별’, ‘신청과 유지의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 ‘낙인감’, ‘피해자 안전 보호에 대한 존중부족’ 등을 보고 하였다. 참여자 6은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때 느꼈던 모멸감으로 인해 수급을 포기한 경험이 있다. 한편 참여자 4는 피해자 안전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 복지시스템에 밀려 다시 이전의 위험한 의존으로 되돌아 갈 수 있는 가능성을 언급하였다.

“저같이 영어가 좀 되는 사람도 어렵고 복잡해요. 인종차별도 겪지요. 오피스에 갔는데 대판 싸우고 그냥 왔어요. 거기 복지사가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먹고 있던 스낵을 씹으면서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나보고 운전면허는 어떻게 났는지를 묻더라고요. 아무 상관없는 그 질문은 왜 하느냐...”(참여자6)

“복지가 저의 안전을 먼저 봐주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면 상황에 밀려 도망나온 그 남편이라도 다시 찾아가고 싶어지죠. ...저희 입장이 되어 보면 아실 거예요.” (참여자1)

대처 욕구 2. 선택과 집중의 복지지원

참여자들은 모두 자활에 목표를 둔 직업훈련, 주택보조, 현금보조서비스 등의 수급경험이 도움을 준 것은 사실이나 실제 지원의 성과는 참여자들의 ‘절름발이’ 상황과 맞지 않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한다. 그들은 선택과 집중의 복지지원들이 자활 초기과정에 절실하다고 보았다.

· 자녀 돌봄 대안 없이는 ‘절름발이’

참여자들이 경험한 초기 자활노력의 가장 큰 걸림돌은 근로활동에 제약이 되는 자녀 돌봄의 부담이었다고 보고한다. 참여자들은 현금지원보다 믿을만한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만 있다면 안정된 근로활동을 통해 더 빨리 자활의 안정 궤도에 진입할 수 있었지만 상황은 열악하였다고 보고했다.

“싱글마더 상황하고 맞지 않는 보육지원...어린 아이를 키우는 시기에는 제가 ‘절름발이’처럼...뛰는 것은 고사하고 걷지를 못해요.”(참여자1)

“전 일하는 것은 두렵지 않아요. 그런데 애들을 키우면서는 답이 안나오더라고요. 생활보조금 안줘도 어딘가 애를 믿고 맡길 수 있게 해주면 가장 좋겠어요.”(참여자7)

·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보다는 실제적 지원

참여자들은 자활기금이나 프로그램들이 보다 실제적 지원방식으로 전환될 필요성을 언급했다. 예를 들어, 현재 화장실도 없는 옥탑 방에서 자녀 둘과 생활하는 참여자7은 새로운 주거공간이 필요했지만 사회복지사가 제안하는 주택(1년 무상) 지원을 신청하지 않았다. 그녀는 현재처럼 매달 조금씩 지원금을 받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으므로 오히려 경제적 자립 준비를 시작하는 시기에 집중적으로 월세 지원을 해준다면 무상 주택을 선택하였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절끔 절끔 주기보다, 힘든 시기에 집중지원 하는 것이 더 나아요. 여기 저기 도움을 받아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꼴이 돼요. 복지사가 1년 무상 주택에 들어가라 했지만 일년 후가 자신 없어 안 들어가겠다고 했어요.”(참여자7)

또한 참여자들은 영어를 가르치는 직업훈련의 예를 들어 자활프로그램이 대상자에게 보다 유용한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자활프로그램을 오랫동안 운영한 사회복지사2는 자활기금자체가 충족할만한 수준이 아니기에 양보다는 질로서 다수 대상자보다는 이혼 직후 자

활을 준비하는 피해여성들에게 지원을 집중하여 비용효과성을 높이고 피해여성들이 다시 가해자에게 돌아갈 가능성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일반 회화보다는 차라리 복지 신청할 때 쓰는 간단한 영어라도 가르치는 것이 더 나은 것처럼…형식적인 것 보다는 실제적인 지원…”(참여자4)

“현재시스템은 자활대상자를 그냥 복지에 머물게 하는 기제가 있어요. 재원이 부족해서 그렇다하지만 그래서 더 선택과 집중의 지원이 필요한 것 아닐까요. 지원자체가 그들을 일어서게 할 만한 도움은 못되는 거죠. 그런 상황들이 여성들을 다시 가해자에게 돌아가게 만드는 것도 있죠.”(사회복지사2)

(2) 자활 지탱력의 개발 시기

참여자들은 자활 과정 초기에 먼저 과거의 상처와 결과들을 추스르며 그들에게 내재된 힘과 능력을 복원할 기회를 가졌다. 이제 그들은 보다 장기적 차원의 자활 과정을 지속하고 지탱할 힘을 개발해야 한다. 이 시기에 그들은(직업을 가진 사회구성원으로, 한 가정을 꾸려가는 가장으로, 자녀의 유일한 부모로서) 다중 역할을 수행하는데서 오는 도전들을 겪고 대처하면서 자활 지탱력을 키워나간다.

도전 1. 부모역할(parenting)과 일(work)의 갈등

참여자들에게 자녀 돌봄과 교육 그리고 가정경제를 책임지는 이중 역할 수행은 장기적 차원의 우선적 삶의 과제이다.

· 생명줄인 ‘자녀와 일’, 둘 다 놓치지 않기

참여자들에게 ‘자녀와 일’은 삶을 유지하고 버티게 만드는 생명줄 같은 의미를 지녔다. 그러나 익숙하지 않은 사회문화적 환경, 척박한 이민자들의 노동 시장, 그리고 언어기술과 지지망 부족의 현실에서 부모역할과 일을 조화시키는 것이 참여자들에게 가장 큰 도전이었다고 고백한다.

“아이도 나처럼 여기서 늘 소수인종으로 느끼는 뭔가의 어려움이 있나 봐요. 그래서 늘 짠했죠. 그런 애를 위해서라도 난 성공해야하고…나에게 자녀와 일은 생명줄인데, 그 둘 다 잡고 있는 것이 늘 제일 어렵죠.”(참여자2)

도전 2. 경제력과 자존감의 조화

참여자들은 경제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힘과 심리 내적 안정을 유지하는 마음의 힘 모두를 동시에 키워나가는 것이 어려웠다고 보고한다.

· 기본 의식주 해결은 자존심

참여자들은 자녀들을 위한 기본적 의식주 해결이 열악한 상황을 가장 최악의 경험으로 기억하였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자존감과 행복감을 느끼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하였다.

“당장 겨울이라 애 점퍼를 사주어야 하는데 당장 수중의 돈이 없는데 자존심 상하죠. 더 상처받고 예민하게 되지요...내가 꼴이 이러니까 애까지 저렇구나.”(참여자1)

· 돈과 마음의 힘은 실과 바늘

그러나 참여자들은 경제적 자립과 스스로에 대해 믿음과 주체성을 갖는 자존감은 ‘실과 바늘’의 관계로 하나가 다른 하나를 이끌어내는 동력이 된다고 보았다.

“돈과 마음의 힘은 실과 바늘 같은? 그 원천이 무엇이든 내 자신과 내 삶에 대한 믿음이 실제생활에서 돈도 별게 해주는 면이 있더라고요.”(참여자4)

“돈이 다가 아닐 수 있지만, 경제력을 갖는 것은 저희 같은 피해의식이 큰 사람들에게 중요해요. ‘내가 렌트비를 낼 수 있구나...내 힘으로 돌아가는 구나’ 이런 느낌이 들면 긍정적 사고기제로 돌아갈 가능성은 크죠.”(참여자6)

도전 3. 낙인감과 수치심

참여자들은 가정폭력피해자, 이혼녀, 한부모, 빈곤층, 수급자, 소수인종 등의 사회적·문화적 낙인들을 다루어야 한다. 그들은 한인으로 당당하게 나서고 교포사회에서도 도움도 받고 싶었지만 교포사회가 가정폭력, 이혼, 한부모 등에 대한 태도가 더 보수적이고 배타적인 특성을 갖고 있어 오랫동안 한인들과 어울리는 것을 피하며 지냈다고 하였다. 그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경제력과 자존감의 회복과 더불어 그 낙인감으로부터 조금씩 편안해지기도 했지만 온전한 극복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 차별, 따돌림, 편견의 대면

참여자들은 소수인종으로 자신이 겪는 모욕감도 아팠지만 자녀가 같은 경험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몇 배 더 아팠다고 한다. 참여자들은 그들의 총체적 조건들(영어소통능력, 한부모, 수급자 등)과 관련된 된 자신감 부족을 극복해나가는 과정은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보고한다.

“학교에서 우리 애가 이상한 애 취급당하는 걸 알고 정말 너무 속상했어요. 난 영어가 안 되고 애 아빠도 없고 이 꼴로 나서지도 못하고...그땐 구걸하는 것 같아 사회복지사를 찾아가는 것도 정말 싫었고...조금씩 나아지지만 빠리는 안되더라고요.”(참여자5)

대처 욕구 1. 성숙한 의존과 자활

참여자들은 결혼생활에서 기대했던 남편과의 상호의존성이 참담하게 무너져버린 후 낮은 삶의 조건들(한부모, 빈곤 등)에 대처하기 위해 의존적 생활방식을 선택하기도 한다. 위에서 살펴본 도전들을 겪으며 그들은 도움을 받는 것 즉 ‘의존’에 대해 그들 고유의 대처 욕구를 발견하게 된다.

· 복지의존은 자활의 과정

참여자들은 복지수급자로서의 생활조건이 자랑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복지의존에 대한 수치심만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었다. 아래 참여자들의 경우, 치유가 필요한 한부모 가족구성원을 예방적 차원에

서 국가가 도움을 제공하는 것은 미래지향적 차원에서 사회문제의 예방에 근본적 대안이 될 수 있으며, 더불어 그들 자신과 자녀들의 행복권을 보호하는 것도 국가의 책임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물론 자랑스럽지는 않죠. 그러나 부끄럽지도 않아요...싱글마더들도 행복할 권리가 있고, 이 애들도 그렇고, 이 애들이 사회에 나가면 어떨까요? 만일 사회악으로 되어 지면 국가가 그것 때문에 재정 지출 해야 되잖아요.”(참여자5)

“이렇게 살고 싶은 사람 없어요...저도 처음엔 거지같아 보여 창피 했어요...근데 이 아이들의 엄마가 바르지 않으면 어찌죠? 지금 도움을 받는 것이 꼭 사회에 해를 끼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갑자기 자활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참여자3)

한인들과 오랫동안 일을 해온 사회복지사1은 미국에서 ‘Welfare Mother’(복지의존에 길들여진 엄마)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교육열이 높고 자립에 대한 욕구가 매우 높은 대다수의 한인들에게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언급하였다.

“교육열 높고 악착같이 일하고, 누구보다 자립하길 원하는 게 한인이에요. 남에게 의지하며 내가 별지 않으면서 쉽게 애 키우는 것을 원하는 한인들은 찾기 힘들어요...조금 뒤에서 밀어주면 정말 멋지게 잘 살아가는 모습들을 제가 지켜보았는걸요.”(사회복지사2)

· 자식 키우는 건 ‘연을 날리는 것’

참여자들은 한부모로서 자녀에 대한 비현실적 기대와 의존을 키울 수 있는 가능성에 경계심을 가질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더불어 그들은 부모로서의 책임과 자녀가 원하는 꿈과 행복을 분리시켜 부모와 자녀의 독립된 삶을 존중할 수 있길 희망하였다.

“자식 키우는 건 ‘연을 날리는 것’이라하죠...내가 느낀 경험이 있으니 저는 애착 안가지려 해요...또 애를 위해 엄마의 삶을 전부 희생하는 것도 아니에요”(참여자6)

“혼자 다 키웠으니까 자녀에게 기대하고 의지하려는 마음이 더 클 수 있죠...근데 오히려 반대로 자녀를 잘 보내고 자기행복을 스스로 찾는 것도 필요해요...제가 엄마로서 한 일 중에 가장 힘든 일이었기도 했지만 제일 잘 한 일이라 생각해요.”(참여자2)

· 실제적 의존이 가능한 대안적 공동체의 개발

참여자들은 장기적 차원에서 그들의 새로운 지지망의 확장이 필요하지만,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자조집단은 그들의 생활조건과 맞지 않고 역량강화보다는 낙인감이 조성되는 점이 있어 대안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현재 자조모임을 꾸준히 나가고 있는 참여자7의 아래 진술과 같이, 그들은 ‘재소자 모임’처럼 불편하지 않고 그 모임의 ‘상호부조’의 의미가 살아나려면 지리적·정서적 접근성이 좋고 실제적 의존이 가능한 대안적 공동체를 희망하였다.

“그 모임이 일과 아이돌봄과 겹쳐질 때도 많고 사실 서로 얼굴 보며 행복하지 않은 것도...재소자들이 같이 모여 있는 느낌. ...시간도 장소도 다르게...이웃처럼 소소한 도움들을 주고받는 것처럼 편한

하면 만나도 즐겁지 않을까요?”(참여자7)

대처 욕구 2. 생계유지에서 꿈의 성취로서의 자활

한부모 경험이 긴 참여자들은 초기 그들의 과거 상처와 후유증에 시달리면서도 생계노동과 자녀양육을 포기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꾸준히 자활의 길을 가는데 있어 참여자들의 내적신념과 꿈이 필요하다고 보고한다.

· 사막의 오아시스 : 신념, 꿈, 동기, 긍정의 힘

참여자들은 앞서 제시한 자활의 현실적 상황들로 인해 다시 주저앉기도 했지만 개인적 신념과 꿈이 삶에 대한 인내와 긍정적 의지를 이끄는 동력이 되었다고 보고한다. 독실한 종교인인 아래 참여자 3과 7은 외로운 홀로서기에서 종교, 꿈, 동기가 ‘사막의 오아시스’가 될 수 있음을 진술한다.

“사막의 오아시스처럼...종교가 생기면서 꿈도, 긍정의 힘도 생겼어요. 내 과거도 지금의 처지도 전 배우는 게 있다고 생각해요. ...동기가 돈보다 중요하죠. 물론 무너져버릴 때도 있지만요.”(참여자3)

집 한 칸은 이슬람문화 자료와 그녀가 출간한 작품(달력, 카드, 장식, 앨범)들로 꽂 차 있었다. ...그녀는 이슬람문화를 알리는 한국의 ‘바른손’이 되고 싶다고 하면서 자신의 작품들을 나에게 소개하였고 그 하나를 선물로 주었다. ...그녀를 만난 시간들 중 그녀가 품고 있는 큰 슬픔과 절망도 보았지만 그 순간만큼 그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보였다. <2012. 12. 10 관찰일지>

· 정직, 선택과 책임, 나눔의 동기

오랜 시간이 흘러 과거를 되돌아 본 참여자들 역시 그들이 현재 느끼는 자신의 가치와 자립의 기저에는 자신들을 이끈 신념과 삶의 동기가 큰 바탕이 되었다고 고백한다. 아래 참여자2는 10년간 가정 폭력피해여성들을 위한 자원봉사자활동을 하였으며, 더불어 저축한 재산을 피해여성을 위해 정기적으로 기부하고 있다. 그녀는 정직하려고 애썼고 스스로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노력하면서 궁극적으로 자신과 같은 상처를 가진 여성들을 위한 나눔의 동기를 키우고 실천해왔다.

“늘 정직하라고 배웠고...내 신조는 세상에 공짜는 없다. 내 선택을 내가 책임진다. 그게 나를 편안하게 한 것이고 그게 나에게서 종교가 된 거예요. 이제 애도 많이 자랐고... 나와 비슷한 사람들을 도우면서 더 행복해졌어요.”(참여자2)

3) 분석결과의 요약적 해석

위 결과해석의 핵심 요지를 요약해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참여자들의 자활이야기를 통해 도출된 주제어 ‘자활’은 경제적 자립뿐만 아니라 ‘한 개인으로서, 부모로서’ 스스로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정신적 자립 능력을 모두 갖추어 나가는 ‘삶의 지속적 과제이자 과정’이다. 둘째, 그들의 자활이야기는 그들이 대면한 자활로의 현실적 도전들과 그 도전들

을 대처하면서 느꼈던 중요한 욕구들로 구성된다. 셋째, 가정폭력피해 한부모 한인 여성으로서 그들이 경험한 자활현실의 특수성이 두드러지는 시기는 '자활 잠재력의 복원 시기'이다. 그들의 자활은 폭력과 이혼으로 무너져 내린 삶의 기반(신체적·정신적 건강, 경제력, 지지망)과 한부모 이민자로서의 각박한 현실과 맞물려 더욱 힘겹다. 그래서 이전 폭력관계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은 시기이기도 하다. 따라서 참여자들은 이 시기에 실질적 차원의 복지이존을 필요로 한다. 즉 따듯함, 역량강화, 안전지향의 '친정집 같은 도움'과 경제적 자활 진입에 실제적 디딤돌이 될 수 있는 자녀돌봄지원과 재정지원이 절박하다. 또한 이민자로서 생활전선에서 당장 필요한 실용영어들을 배우는 기회도 필요하다. 넷째, 다음은 자활 지행력의 개발 시기이다. 자활은 장기적 삶의 여정이기에 오랫동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경제력과 내공도 필요하다. 그들의 생명줄인 자녀와 일 모두 견고하게 키우는 일, 돈만으로는 다 질 수 없는 자존감을 경제력과 조화시키는 일,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지는 사회적·문화적 낙인들에 위축되지 않고 그들 존재 그대로 의연해지는 일을 포함한다. 다섯째, 그들의 자활 이야기에는 국가가(혹은 복지시스템이) 그들의 복지이존을 경계하고 반드시 극복해야 하는 현실적 부담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활의 길에 진정한 동반자가 되어준다면, 그들 역시 자활의 목표를 복지이존과 생계유지를 넘어선 개인적 신념과 꿈의 성취로 끌어올릴 수 있는 역량과 성장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는 긍정의 메시지가 담겨있다. 마지막으로, 그들의 이야기는 자활에 대한 국가 정책의 논의에 담아야 할 '아래로부터의 관점'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기존 '위로부터의 관점'은 자활 초점을 참여자들의 단기 시점 중심의 복지이존 상태 혹은 경제적 자립성과에 두어, 국가는 그들의 감시자와 통제자의 역할을 하게 된다. 반면 당사자에게 자활은 특정 시점의 성과가 아니라 지속적 삶의 '과정'이다. 특정 시점에 '복지이존'을 통해 자활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음을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지만, 그들은 복지이존에 머물러 있길 원하지 않으며, 궁극적으로 경제적 자립과 자존감이 조화되어 자아 성숙 및 성취의 과정으로 나아간다. 즉 '아래로부터의 관점'의 자활 초점은 '복지이존에서 자활로의 도전'을 극복해나가는 당사자의 역동적 삶의 '과정'에 있으므로 국가가 자활 당사자들과 신뢰와 지지의 동반자적 관계를 맺을 수 있다.

5. 논의 및 제안

복지개혁법안 PAWORA는 연방정부기금을 받는 복지수급자들에게 5년의 시간제한을 두고 일 관련 활동(work-related activities)⁹⁾ 참여를 의무화하고 있다. 기존 연구들(Murphy, 1997; Brush, 2000; Cheng, 2010)은 5년이라는 기간 동안 자활대상자들이 탈수급과 복지이존의 복귀를 반복하거나 근로 참여를 주기적으로 반복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안정적 직업 활동을 지속하는 것이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이 지적의 타당성을 가정폭력분야 클라이언트중심으로 접근하는 동시에 소수인종 이민자로서의

9) 이 법안은 여성들에게 하나의 직업 혹은 단기 직업훈련프로그램들을 찾아 구조화된 직업배치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요구하며, 이용 가능한 프로그램이 없을 경우, 일반고용, 현금보조 혹은 공적·사적 섹터 고용 등의 경험을 포함한다.

특정 맥락을 알 수 있는 위 연구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관련된 사회복지적 논의와 제안은 아래와 같다.

첫째, 한부모 빈곤여성들을 지원하는 TANF프로그램 운영의 개선이 필요하다. 참여자들의 가정폭력역사를 확인하여 그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복원을 위한 특정의 재활기간을 허용해주어야 한다. 장기적 차원의 자활 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초기의 재활지원 없이는 그들이 국가가 기대하는 수준의 자활 근로와 자녀양육을 모두 수행한다는 것이 어렵고, 설사 그들 스스로 갈급하여 근로를 시작하더라도 건강이 악화되어 회복이 더 어려운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TANF 사례관리모델에 가정폭력역사와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관리하는 개별화된 건강 치료 및 관리 시스템을 연동하여 대상자의 건강수준에 맞는 근로활동을 단계별로 선택하고 이동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어야 한다.

둘째, 위의 배려와 더불어 TANF 대상자들을 위한 아동돌봄서비스의 확충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위 참여자들처럼, 많은 한부모 여성들이 보육자원의 열악함과 접근 가능한 교통수단의 제약으로 그들의 자활 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일의 참여 및 기회 획득이 어렵다고 보고한다(Tolman and Raphael, 2000; Rusyda et al., 2011). 특히 한인 같은 이민자들은 언어와 문화장벽으로 인해 일반 보육서비스를 활용하길 꺼리는 편이므로, 문화적 민감성 차원에서 소수인종 이민자와 동일한 배경을 가진 전문인력들을 선발하여 아동돌봄지원센터에 배치해주는 것도 필요하다. 그 인력들이 이민자들에게 미국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부모역할교육을 제공해준다면 그들의 한부모 역할과 자활 의지와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자활정책이 가정폭력예방정책과 갈등관계에 놓이지 않도록, 관련 전문가들은 “복지 의존의 감소가 곧 수급자들의 자활 성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특히 가정폭력피해여성들의 경우 복지의존 대신 가해자 의존을 통해 탈수급되는 양상”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수급권 기간 제한과 현금지원의 조건부 근로 의무화는 가정폭력피해 한부모 이민 여성에게는 매우 위협적인 압박이 될 수 있다. 특히 건강의 약화와 더불어 사회적 고립감을 크게 느끼는 이민여성에게 ‘자활 잠재력 복원 시기’에 질 높은 복지서비스는 매우 중요하다. 이 시기 사회복지사들은 ‘친정집 같은 도움과 지원’ 그리고 ‘역량강화와 안전지향의 복지’ 서비스 질을 갖출 수 있도록 위의 이슈에 대한 인식강화 교육을 제공받아야 한다.

넷째, 위 문제들을 인정한 Family Violence Option(FVO)¹⁰⁾은 피해여성들이 임시적으로 PAWORA의 기간 제한과 근로참여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 법안으로, 여성옹호운동의 성과로 첨가된 규정이다. 그러나 아직 미국 모든 주들이 이를 받아들인 것은 아니며, 이미 허용한 주들의 관련 현장에서조차 이 법안의 실재와 그 유용성을 잘 인식하지 못하여 해당 여성들은 그 규정을 활용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다(Tolman and Raphael, 2000; Scott et al., 2002). FVO 법안의 애초 취지를 잘 살리기 위해서는 그 효력이 실제로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민관협력의 특수대책개발팀을 마련하고, 현장에서 대상자들이 이 법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FVO 수행매뉴얼을 개발하되, 이민자들의 언어장벽을 고려하여 미국 내 소수인종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번역판들을 동시에 출간하는

10) 이하 본문에서는 약자인 FVO를 사용함.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자활재원의 할당방식을 클라이언트중심관점에서 재검토해보아야 한다. 참여자들은 현재의 복지지원방식이 복지의존과 빈곤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줄 수 없음을 언급하면서 '선택과 집중'의 지원방식을 제안하였다. 예로, 근로 동기와 성과가 우수한 한인여성들 같은 자활 대상자들에게는 장기적 할당으로 지급했던 보조금을 자활 잠재력 복원시기에 단기로 집중 지원 및 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자활 진입에 필요한 디딤돌을 마련해준다면 자활 재원의 비용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가정폭력생존자들을 위한 자활프로그램의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지집단모임이 역량강화보다는 낙인감을 조성한다는 위 참여자들의 보고("재소자들의 모임")는 관련된 서비스제공자들에게 매우 도전이 되는 이슈이다. 지지집단은 서구에서는 매우 전통적인 모델이지만 한인들에게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면, 서비스제공자들의 관점에서 클라이언트중심관점에서의 전환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예로, 서비스 기관과 제공자들이 가능한 시간과 장소에서 형식적 모임을 갖는 것 보다는, 참여자들의 절박한 욕구에 해당하는 자녀돌봄에 대한 '공동육아'공간을 접근성 높은 지역에 마련하여 참여자들이 집단적으로 책임지며 운영하면서 상호부조의 에너지를 실감할 수 있는 기회를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복지의존과 자활에 대한 레질리언스 및 역량강화 관점이 필요하다. 위의 참여자들은 자활 잠재력 복원의 시기에 경제적 기반과 자존감이 약해진 상태라 복지의존이나 사회적 낙인들에 대한 수치심을 느꼈다. 그러나 이후 그들 고유의 레질리언스를 회복시키고 미래지향적 자활 의지를 통해 역량강화되는 계기가 마련되었을 때 '복지(혹은 대안적 지지망에)의존 그리고 개인과 국가의 책임'에 대한 건강한 의식을 발전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현재 복지패러다임에 꼭 반영해야 하는 아래로부터의 '복지의존과 자활의 의미'로서, 국가가 '복지의존은 반드시 극복하고 끊어내야 하는 어두운 현실'이라기보다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자활로 나아가기 위한 필요한 단계이고 과정의 일부'로서 수용하는 '통제와 관리자에서 동반자로의 인식 전환'에 대한 그들의 기대라고도 볼 수 있다.

위 연구 성과를 근거로 국내에 제안할 수 있는 점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자활사업 참여자들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남성보다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황미영, 2002; 정원오·김진구, 2005), 자활사업 운영기관들이 참여자들의 가정폭력문제를 다룰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로,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국내 복지관들이, 출발 단계로서, 윤리적 민감성을 갖춘 가정폭력전문인력의 수급(혹은 기존 직원의 재교육)을 통해 자활사업 운영 시 사업신청인들을 초기 면접하는 과정에서 가정폭력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들을 포함시킬 수 있다. 만일 확인이 된다면 복지관과 연계되어 있는 '가정폭력전문서비스'와 '여성보건서비스'를 연계하여 참여자들의 건강수준과 근로조건을 반영할 수 있는 근로연계복지를 개발해준다면 가정폭력예방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활 의지와 성취도를 높여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국내 자활사업을 평가하는 연구들(진재문, 2001; 이인재, 2003; 정원오·김진구, 2005; 김미곤, 2008) 역시 현재의 자활 재원 및 사업전략이 대상자들의 자활과 탈수급을 돕는데 역부족임을 지적하였다. 앞서 참여자들이 언급한 자활 재원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방식을 염두에 둔다면, 국내 자활관련 재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선택과 집중'전략에 대해 진지하게 고려해볼만하다. 셋째, 일찍이 김인숙(2008)은 국내 자활 패러다임의 혁신

적 모색과 개념의 재구성을 제안하였지만, 아직 자활에 대한 개념적 논의를 발전시킬 수 있는 국내 연구들이 축적되지 못한 현실이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한 개인에게 자활은 지속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삶의 과제이며 경제적 자립과 자존감의 조화를 이루며 나아가는 성장의 과정'임을 일깨워주었다. 즉 자활은 단순히 횡단적이고 정체된 한 시점의 개인의 경제적 상태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개념으로 자활에 대한 확대적 정의와 질적평가 접근의 필요성이 확인된 것이다. 덧붙여 국내의 자활 논의와 연구의 지형을 확장시키기 위해 가정폭력피해 한부모여성을 포함하여 다양한 배경과 특성을 가진 자활 당사자들의 고유한 장애물과 강점을 이해하는 아래로부터 관점 연구들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남식·백선희, 2001, “여성복지적 관점에서 자활지원사업의 분석과 활성화 방안”, 『사회보장연구』, 17(2): 49-78.
- 강남식·신은주·성정현, 2002, “여성 조건부 수급자들의 실태와 자활의욕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19: 24-50.
- 김미곤, 2008, “근로능력 수급자의 탈수급 방안”, 『보건복지포럼』, 73-81.
- 김인숙, 2008, “‘자활’ 개념의 재구성에 대한 탐색-성매매여성 자활현장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22: 95-129.
- 외교통상부, 2010, “재외동포 요약”, www.mofat.go.kr.
- 이인재, 2003, “한국 자활산업의 동향과 과제”, 『동향과 전망』, 58: 102-139.
- 정원오·김진구, 2005, “자활사업에 대한 참여자들의 주관적 평가와 자립전망”, 『사회복지연구』, 28: 35-67.
- 진재문, 2001, “새로운 빈곤정책으로서의 자활사업:가능성과 한계”, 『한국사회복지학회 2001년도 춘계학술대회자료집』, pp. 87-101.
- 황미영, 2002, “여성자활의 조건과 여성특화 자활사업의 특성”, 『한국사회복지학회 2002년도 춘계학술대회자료집』, pp. 605-620.
- Becker, J., Kovach, A. C., Gronseth, D. L., 2004, “Individual empowerment: How community health workers operationalize self-determination, self-sufficiency, and decision-making abilities of low-income mothers”,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32(3): 327-342.
- Bhuyan, R., 2008, “The production of the ‘battered immigrant’ in public policy and domestic violence advocacy”,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3: 153-170.
- Brush, L. D., 2000, “Battering, traumatic stress, and welfare-to-work transition”, *Violence Against Women*, 6(10):1039-1065.
- Cheng, T., 2010, “Financial self-sufficiency or return to welfare? A longitudinal study of mothers among the working poor”,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Welfare*, 19:162-172.
- _____, 2012, “Intimate partner violence and welfare participation: A longitudinal causal analysi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8(4):808-830.
- Cooney, K., 2006, “Mothers first, not work first: Listening to welfare clients in job training”,

- Qualitative Social Work*, 5(2):217-235.
- Daugherty, R. H., and Barber, G. M., 2001, "Self-sufficiency, ecology of work, and welfare reform", *Social Service Review*, 663-675.
- Edin, K., 2000, "What do low-income single mothers say about marriage?", *Social Problems*, 47(1):112-133.
- Garces, J., Rodenas, F., Sanjose, V., 2003, "Towards a new welfare state: The social sustainability principle and health care strategies", *Health Policy*, 65(3): 201-215.
- Gondolf, E. W., 1998, *Assessing Woman battering in Mental health Services*, Sage Publications Thousand Oaks. London, New Delhi.
- Gowdy, E. A., and Pearlmutter, S., 1993, "Economic self-sufficiency: It's not just money", *Affilia*, 8(4):368-387.
- Grube-Farrell, B., 2002, "Women, work, and occupational segregation in the uniformed services", *Affilia*, 17:332-353.
- Hawkins, R. L., 2005, "From self-sufficiency to personal and family sustainability: A new paradigm for social policy", *Journal of Sociology and Social Welfare*, 32(4):77-92.
- Hetling, A., and Born, C. E., 2005, "Examining the impact of the family violence option on women's efforts to leave welfare", *Research on Social Work Practice*, 15(3):143-153.
- Hong, P. Y. P., Sheriff, V. A., and Naeger, S. R., 2009, "A bottom-up definition of self-sufficiency : Voices from low-income", *Qualitative Social Work*, 8(3): 357-376.
- Huisman, K., 1996, "Wife Battering in Asian American communities: Identifying the service needs of an overlooked segment of the U.S. population", *Violence Against Women*, 2:102-118.
- Kim-Goh, M., and Baello, J., 2008, "Attitudes toward domestic violence in Korean and Vietnamese immigrant communities: implications for human services", *Journal of Family Violence*, 23:647-654.
- Kim, Y. Y., and Sung, K., 2000, "Conjugal violence in Korean American families: A residue of the cultural tradition", *Journal of Family Violence*, 331-335
- Kneipp, S. M., 2000, "Economic self-sufficiency: An insufficient indicator of how women fare after welfare reform", *Policy Politics Nursing Practice*, 1: 256-266.
- Long, D. A., 2001, "From support to self-sufficiency: how successful are programs in advancing the financial independence and well-being of welfare recipients", *Evaluation and Program Planning*, 24:389-408.
- Marshall, C., and Rossman, G. B., 1989, *Designing Qualitative Research*, Sage Publications: Newbury Park London.
- Meisel, J., Chandler, D., and Rienzi, B. M., 2003, "Domestic violence prevalence and effects on employment in two California TANF populations", *Violence Against Women*, 9(10): 1191-1212.
- Miles, M. B., and Huberman, A. M., 1994, *Qualitative Data Analysis*, CA: Sage.
- Murphy, P. A., 1997, "Recovering from the effects of domestic violence: Implications for welfare reform policy", *Law and Policy*, 19(2):169-182.
- Raj, A., and Silverman, J., 2002, "Violence against immigrant women: The roles of culture, context and legal immigrant status on intimate partner violence", *Violence Against Women*,

8(3):367-398.

- Raphael, J., 1997, "Welfare reform: Prescription for abuse? A report on new research studies documenting the relationship of domestic violence and welfare", *Law and Policy*, 19:123-37.
- Rhee, S., 1997, "Domestic violence in the Korean immigrant family", *Journal of Sociology and Social Welfare*, 24:63-77.
- Riger, S. and Staggs, S. L., 2004, "Welfare reform, domestic violence, and employment: What do we know and what do we need to know?", *Violence Against Women*, 10:961-990.
- Rusyda, H. M., Lukman, Z. M., Subhi, N., Chong, S. T., Latiff, A. A., Hasrul, H., and Amizah, W. M. W., 2011, "Coping with difficulties: Social inequality and stigmatization on single mothers with low income household", *Pertanika Journal of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19(S):157-162.
- Scott, E., London, A. S., and Myers, N. A., 2002, "Dangerous dependencies: The intersection of welfare reform and domestic violence", *Gender and Society*, 16:878-895.
- Tolman, R. M., and Raphael, J., 2000, "A review of research on welfare and domestic violence", *Journal of Social Issues*, 56(4):655-682.
- Tolman, R. M., and Rosen, D., 2001, "Domestic violence in the lives of women receiving welfare: Mental health, substance dependence, and economic well-being", *Violence Against Women*, 7(2):141-158.
- Vernon, A., and Qureshi H., 2000, "Community care and independence: Self-sufficiency or empowerment?", *Critical Social Policy*, 20(2):255-276.
- Yoshioka, M. R., Dinoia, J., and Ullah, K., 2001, "Attitudes toward marital violence: An examination of four asian", *Violence Against Women*, 7:900-926.

The Self-Sufficiency Experience of Korean-American Single Mothers with the History of Domestic Violence in Poverty

Chong, Hyesuk
(University of Seoul)

Self-sufficiency has been recognized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welfare goals for women in the domestic violence field since the welfare reform in the U.S. A qualitative research design was conducted to explore the self-sufficiency experience of Korean-American single mothers with the history of domestic violence in poverty. The meaning of 'self-sufficiency' to participants is that a continuing task or process in life to move toward being independent mentally as well as economically. Their challenges toward self-sufficiency include the period of restoration of their potentials for self-sufficiency destroyed by domestic violence victimization and divorce, and the period of developing their sustainability for self-sufficiency. Their needs for 'help and support similar to care from the woman's parents' home', 'welfare service of select and concentration', 'mature dependency and self-sufficiency', and 'self-sufficiency from survival to dream come true' to cope with the challenges formentioned are reported. Concrete strategies for the development of self-sufficiency polices and services sensitive to immigrant single mothers with the history of domestic violence are suggested.

Key words: self-sufficiency, domestic violence, single mothers, welfare dependency, qualitative study

[논문 접수일 : 13. 09. 30, 심사일 : 13. 10. 09, 게재 확정일 : 13. 11. 05]